하나님 침대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역대하 14:1~15)

1.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십 년 동안 평안하니라
2.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3.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4.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침대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침대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몸집이 거인 같은 노상강도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프로크루스테스는 아테네 교외에 있는 케피소스 강가의 언덕에 집을 짓고 살며 강도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있었는데, 그의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제로 붙잡아서 침대에 누이고는 키가 침대보다 크면 남는 부분을 잘라내고,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잡아 늘리는 식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침대 크기에 딱 맞아서 살아나온 사람은 있었을까요? 그의 침대에는 길이를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장치가 있어서 그 누구도 그 침대에 맞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이 신화에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일단 한 번 가지면 침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눕혀서 넘쳐나는 부분은 잘라내고 모자라면 늘리는 식으로 자기 생각의 침대에 남의 생각을 맞추려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이것은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주어지는 상황에서도 종종 봅니다. 요즘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논쟁 중인데 우파적 성향의 기준을 가진 정치인들이 좌파적 성향의 예술인들의 지원을 방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 왕국 유다의 3대 왕이자 다윗 왕조의 5대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었던 왕이었으나 역대기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자인 에스라는 단순히 역사를 재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에스라 사상의 중심이 되어서 다윗 자손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징검다리로서의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사 왕의 통치를 통해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받아 들였을 때에 임하는 여러 가지 은혜 중에서 특별히 평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7절까지 반복해서 평안이라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통치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서 이러한 평안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벌기 위해 애썼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아사 왕이 각종 우상을 타파하는 종교개혁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더니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활화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탁월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에스라는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중심으로 아사 왕의 이야기를 서술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안이 우상을 훼파한 것과 연관되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사 왕은 단순히 이방의 우상들과 신상들을 깨뜨린 것뿐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상을 섬기자 태후의 자리로부터 폐위시켜버릴 정도로 단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상과 평안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하나님의 침대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상 자체를 좋아하여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꼭 이루고 싶고 갖고 싶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행복하고 기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을 모르더라도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로 누구나 기뻐함으로서 에덴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붙잡은 가치를 손에 넣기 원하는데 안 될 때에 동원되는 방법론이 우상숭배였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의미에서 우상숭배는 지속되고 있고 종교생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우상숭배가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가 곧 자기 계발이었고 스펙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을 깨뜨렸다’는 것은 이러한 방법론으로 얻으려 하는 ‘가치를 마음에서 쫓아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자 평안을 주셨고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관계해서 말하자면 사람의 마음이 곧 침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침대는 하나님이 누우시도록 만들어진 침대입니다. 하나님이 누우실 자리에 돈을 눕힌다면 돈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에 침대 크기에 모자랍니다. 그 모자란

부분에서 사람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키에 맞게 만들어진 침대에 맞추기 위해 사람들은 눕혀놓은 돈을 잡아 늘리기 시작합니다.

프로크루스테스가 미치광이 강도였던 것처럼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 우리 정신세계에도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의 침대와 그곳에 눕힌 것들의 길이가 맞지 않을 때에 마음에 불안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아 늘리려는 것이 우리 삶의 평생 내용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까지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최순실의 딸에게 지원해준 돈이 뇌물인지에 대해서 시끄럽습니다. 특검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가게 된 이재용 부회장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돈을 성공적으로 늘린다 해도 삶에 찾아오는 불안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 요새 젊은 연예인들의 결혼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씨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들에게 주례를 서주는 마음으로 한 마디 해보겠습니다. 가수 비와 김태희 씨가 서로를 마음에 담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인물일지라도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요구를 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누우시도록 만들어진 그 침대를 꽉 채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그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며 그로 인해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자식을 잡아 늘려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침대에 맞추려는 것인데 그럴 때에 자식과의 관계에 부작용이 생겨나고야 맙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침대로 만들어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누우시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이것을 우상타파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타파했다'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없앤 것이 아니라 우상을 방법론으로 삼아 추구되던 세상의 가치를 몰아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아내자 하나님의 침대로 만들어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누우셨고 그로 인하여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카투사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군대생활 절반은 제2사단 비행대에서 비행기 정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갔을 때에 고참들이 주의를 주는데, 절대로 쉬는 시간이나 휴일에 다른 부대원의 침대에 같이 눕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이 같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 동성연애자로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당시 군대에서는 선배 고참이 후배 고참을 껴안고 자는 일도 비일비재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침대에는 돈이 누워도 안 되고, 자식이 누워도 안 되고, 권력이 누워도 안 되고, 사업의 성공이 누워도 안 됩니다.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이 먼저 누우시고 남는 여분에 그런 것들도 같이 껴안아서 누우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침대에 다른 존재와 눕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생애는 잡아 늘리는 삶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나

타나고야 맙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누우실 때에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아사 왕이 누렸던 평안이 환경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까 에스라는 곧바로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이라는 말이 네 번씩이나 나오는데 이 평안은 마음의 침대에 세상의 가치들을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을 모심으로서 주어집니다.
세상적인 평안은 내가 원하는 가치들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사업이 잘되고 건강하고 금고에 돈이 쌓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을 복음이 주는 평안으로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전쟁을 가져다 붙였습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평안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침대에 누우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현장에서 누렸던 평안과 같은 절대 평안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큰일이 났다고 아우성을 치더라도 내 안에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사 왕은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지만 대적들을 마주하여 이기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침대에 하나님이 누워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풍랑만난 배 위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무시기 이전에 주님의 마음속 침대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워계셨던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큰 풍랑이라도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제자들이 아우성을 칠 때에 주님께서는 보란 듯이 더욱 깊이 주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침대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누워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풍랑과 바람뿐만이 아닌 모든 천지만물을 지으셨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8절에서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마귀가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침대를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로 만들어 버렸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서 마음의 침대에 눕혀놓더라도 다 짧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불안이 생기고 근심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생활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침대에 세상 것을 눕히려 하고 그로 인해 평안과 만족을 꾀하려 합니다. 돈이 좀 있으면 좋겠고 자식이 잘되면 좋겠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은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누우셔야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우리의 하나님 침대를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이를 저지하고 막고 깨뜨림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침대로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편안히 누우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카투사들이 한 침대에 눕지 말라고 교육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대에는 하나님만 누우셔야 합니다. 죄악의 근본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의 침대로 만들어진 마음에 다른 것들을 들여놓는 것이 죄악입니다. 이것을 십자가 생활화로 막아야합니다. 마귀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로 만들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본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침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삶의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깨지지 않고 유지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삶이 어떤 위급한 일이 직면하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대면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삶의 내용이 하루하루 꽉꽉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로 만든 마귀의 궤계를 깨고 하나님의 침대로 돌림으로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오셔서 누우시므로 평안의 삶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